



Case Report / 증례보고

「傷寒論」 回逆湯으로 호전된 아토피피부염 환자 1례에 대한 증례 연구

임은교^{1†}, 하현이^{2†}, 장일웅³, 이승인^{4*}

¹청아한의원, ²생동한의원, ³목포청연한방병원

⁴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A case study of a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who improved with *Shanghanlun* Hoeyeok-tang.

Eunkyo Lim^{1†}, Hyun-ye Ha^{2†}, Il-Woong Jang³, Soong-in Lee^{4*}

¹Cheong-Ah TKM Clinic

²Saeng-Dong Korean Medical Clinic

³Mokpo Chung Yeon Korean Medicine Hospital

⁴Department of Herbal Formula Science, College of Korean Medicine

ABSTRACT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port a case of atopic dermatitis (AD) treated with Hoeyeok-tang.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ourse of herbal medicine treatment in a 20-year-old male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Changes in main symptoms were confirmed based on the gross findings and assessed using SCORing Atopic Dermatitis (SCORAD) Index. Accompanying symptoms and side effects that can be referred to for diagnosis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clinical records.

Results : According to the *Shanghanlun* provision, the patient's AD was diagnosed with Terminal-yin Gwakran 389th provision.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Hoeyeok-tang for 90 days. The severity of pruritus decreased, and SCORAD Index was decreased from 44.6 to 8.4. VAS for eye fatigue and nausea was decreased from 10 to 5, also. No particular side effects occurred to the patient while taking the Hoeyeok-tang.

Conclusions : The result suggests the clinical applicability of 389th provision of *Shanghanlun*.

Key words : Hoeyeok-tang, Sayeok-tang, Sinitang (chinese), Atopic dermatitis, *Shanghanlun*.

I. 서론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소양증, 피부 건조 등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재발하는 피부 습진 질환이다. 발병 요인은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이상, 피부장벽 기능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2)}.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은 연령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인기에는 주로 접히는 부위의 소양성丘疹 및 태선화 병변으로 나타나며 안면 부위 증상도 흔하다²⁾. 아토피피부염은 대부분 재발이 잦고 극심한 소양감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유발하므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³⁾.

아토피피부염의 일반적인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가 활용되는데,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은 일시적 증상 경감에 효과적이거나 피부위축, 재발악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장기간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⁴⁾.

한의학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을 胎熱, 奶癬, 浸淫瘡, 四彎風 등으로 보아 風熱, 濕熱, 血虛風燥, 血熱, 濕熱溫燥 등의 증으로 진단⁵⁾하고 清熱利濕, 祛風止癢 滋陰養血의 방법으로 치료한다⁶⁾. 아토피피부염의 기존 한의학 연구로는 한약, 침, 약침 등의 치료 활용 연구⁷⁾,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다빈도 사용된 본초 연구⁸⁾, 스테로이드 중단 이후 반동 현상과 같은 치료 부작용에 활용하여 증상 호전을 확인한 연구⁹⁾가 있었고, 『傷寒論』 五苓散¹⁰⁾ 吳茱萸湯¹¹⁾, 甘草瀉心湯¹²⁾, 小柴胡湯¹³⁾, 桂枝人蔘湯¹⁴⁾, 白虎湯¹⁵⁾ 등 방제를 활용한 증례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回逆湯’은 康平本(1060)에서 甘草, 乾薑, 附子로 구성되며, 宋本(1599)에서는 ‘四逆湯’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¹⁶⁾. 回逆湯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 연구는 傷寒後 厥證 치료에 활용한 연구¹⁷⁾와 과민성 방광에 투여한 증례 연구¹⁸⁾, 전신 건선 증례 보고¹⁹⁾ 등이 있다. 본 증례와 동일하게 아토피피부염에 활용된 연구로는 324條 少陰病 回逆湯²⁰⁾ 증례 연구가 있었으나, 厥陰病 霍亂 389條 回逆湯으로 진단하고 적용된 증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본 증례는 『傷寒論』 條文에 근거한 辨病診斷體系²¹⁾를 활용하여, 頭面部와 목, 肘膝窩部에 발생한 아토피피부염을 厥陰病 霍亂 389條文으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回逆湯을 투약하여 유의미한 증상 개선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 증례 분석과정에서 확인한 厥陰病 霍亂 389條文의 임상적 의미를 고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증례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한약 치료는 도표(Table. 1)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回逆湯을 제조하여 처방했으며, 증례보고의 형태는 국제 증례보고지침(CARE guideline)을 반영하였다. 환자의 주소증과 관련된 주요 사건 및 증상, 한약 복용에 따른 치료 경과를 연대표로 도식화하였다. 아토피피부염의 경과 평가에는 SCORAD Index와 환부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였고, 주소증 및 주요증상의 평가는 환자의 진술과 Visual Analogue Scale(VAS)를 활용하였다.

III. 증례

1. 환자 기본정보

남성 / 만 20세 / 180cm / 63kg / 학생

2. 주소증(C/C) :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頭面部(귀 주변)와 목, 肘窩部, 膝窩部, 脛部의 紅斑, 丘疹, 鱗屑, 滲出物, 搔痒症. 환자의 피부염이 심해질 때는 울렁거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심해지는데, 동시에 목과 턱 부위의 피부 소견이 악화되며, 이 부위에서부터 두면부로 피부 소견이 퍼져나가는 양상이라고 함. 전신 중에 이 부분의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호소하였음.

3. 발병일(O/S)

: 2021년도 3월 개학 후 환자가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눈의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복시(Diplopia)가 생겼음. 고등학생 시절에도 복시가 심해졌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study.

*Corresponding author : Soong-in, Le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120-9 Dongsindae-gil, Naju-si, Jeollanam-do, 58245, Republic of Korea
Tel : +82-61-330-3529, Fax : +82-61-330-3519, E-mail : barunhani@hanmail.net

•Received : April 11, 2023 / Revised : May 18, 2023 / Accepted : May 22, 2023

고, 아토피피부염 발병 시점에는 복시로 눈의 피로감이 심한 가운데, 집중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 하면서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였음. 肘膝窩部に 국한되었던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두면부, 목에도 발생하여 2021년 6월 초 한의원에 내원함.

4. 현병력(P/I)

- 1) 학령기 이전에 아토피피부염 증상 발생했으나 치료 후 호전되었고 증상이 없는 상태로 2020년도 여름 전까지 유지됨.
- 2) 2020년도 여름, 음식을 잘못 먹고 하루 종일 열이 난 이후로 아토피피부염 증상 재발됨. 發熱 증상은 완화되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肘膝窩部に 紅斑, 丘疹, 搔痒症이 지속되었음. 이후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열이 오르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搔痒症이 심해짐.

5. 가족력

: 별무

6. 과거력

- 1) 複視. 2021년도. [3. 발병일] 항목 참고

7. 현재 사용중인 약물

: 별무

8. 주요 임상증상

: 면담과 설문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전신적 상황을 파악함

- 1) 食慾 : 1일 3끼. 대체로 양호함. 편식을 하는 것은 아니나 음식의 향에 민감한 편임.
- 2) 消化 : 울렁거림과 소화불량이 잦음. 눈이 피곤할 때 울렁거림과 소화불량이 심해짐.
- 3) 口部 : 이상을 느끼지 않음. 음수량은 하루 약 0.5L.
- 4) 汗出 : 많은 편임.
- 5) 大便 : 1일 1회. 대체로 양호하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대변이 약간 물러짐.

6) 小便 : 3~4회/일. 양호함.

7) 寒熱 : 추위를 더 많이 타는 편이며 손발이 찬 편임. 학업에 집중하면서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더욱 추위를 타게 되었음.

8) 頭面 : 고등학생 무렵부터 複視가 심해져 초점이 잘 맞지 않음. 눈이 피로할 때 두통과 현훈이 심해짐.

9) 呼吸 : 숨이 잘 차는 편임.

10) 胸部 : 간헐적으로 답답함과 두근거림을 느끼나 고등학생 때보다는 덜함.

11) 腹部 : 별무.

12) 睡眠 : 1시 취침, 9시 기상. 입면에 1시간 내외 소요됨. 가렵지 않아도 자다가 잘 깨는 편인데 최근 가려움증 때문에도 자다가 깸.

13) 身體 : 발에 쥐가 잘 남.

14) 性慾 : 별무.

9. 진단

1) 『傷寒論』 厥陰病, 389번 條文 : 既吐且利, 小便復利, 而大汗出, 下利清穀, 內寒外熱, 脈微欲絕者, 回逆湯主之.

2) 진단근거

① ‘霍亂’, ‘既吐且利’ : [8. 주요임상증상-2] 소화 항목에 기술된 대로, 환자는 학습과 눈의 피로감에서 시작된 울렁거림과 소화불량이 잦았으며, 이 증상이 심해지면서, 목과 턱 부위의 피부 소견이 뚜렷하게 악화되고, 頭面部로 병변 부위가 확장된 것으로 판단함.

② ‘下利清穀’ :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대변을 무르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피부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함.

10. 치료적 중재

1) 한약 : 回逆湯을 『한의학제학』의 『傷寒論』 용량 제안 기준^{21,22)}으로 환산하여 처방하였음(Table 1).

2) 생활지도 : 안구 피로 관리, 산책, 실외 활동 권장, 피부 보습, 방한 등

Table 1.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Hoeyeok-tang¹⁶⁾

Herbal name	Daily dose(g)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0
Zingiberis Rhizoma	4.5
Aconiti Ciliare Tuber	3.0

The above dose is a daily dose of medication. The herbs above were boiled with water for 2 hours, and residues were removed. The patient was administered 120cc each time, twice a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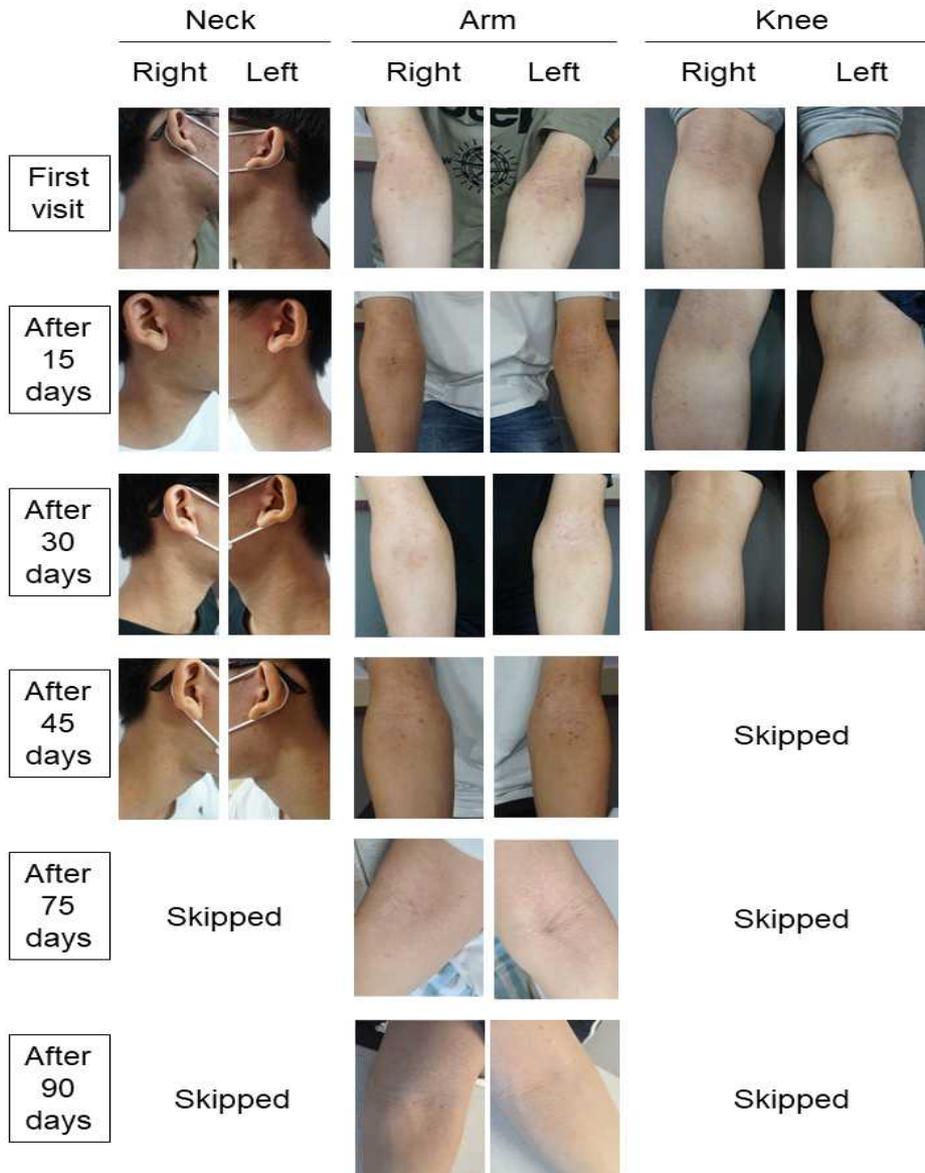


Fig. 1. Skin changes in the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11. 경과

아토피피부염 소견은 위 그림(Fig. 1)과 같이 진료 시 촬영한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소견과 진단에 중요한 증상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진일

① 피부 소견: 최근 자다가 깨거나 긁는 때가 늘었고 귀 주변, 목, 肘膝窩部 피부에 濕疹이 발생하고 진물, 癢痒感이 있는 상태임. ▶ SCORAD Index 44.6

② 389조 진단 소견: 운동 등으로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눈의 피로감이 심하지 않으나, 오랜 시간 공부한 이후에는 눈의 피로와 울렁거림이 심함. 간헐적으로 흉부 답답함을 느낌. ▶ VAS 10

2) 回逆湯 15일 복용 후 재진

① 피부 소견: 귀 주변, 肘膝窩部, 목의 滲出物은 줄었으나 紅斑, 丘疹, 搔痒症은 남아있음. 脛部의 증상은 호전됨. 전보다 밤에 긁거나 깨는 횟수가 감소함. ▶ SCORAD Index 31.8

- ② 389조 진단 소견: 눈의 피로나 올렁거리는 정도, 간헐적인 胸部 답답함에는 차도 없음. ▶ VAS 10
- ③ 긴장 시 열이 오르는 증상은 완화됨.

3) 回逆湯 30일 복용 후 재진

- ① 피부 소견: 귀 주변의 丘疹, 鱗屑이 있으나 전보다 부위 감소함. 肘膝窩部, 목의 濕疹의 紅斑, 丘疹, 搔痒症 정도도 완화됨. 發汗 時의 搔痒症은 여전함. ▶ SCORAD Index 26.7
- ② 389조 진단 소견: 기상 시 눈이 피곤하고 충혈되는 정도와 올렁거리는 정도 약간 줄어들음. 간헐적인 흉부 답답함 약간 감소함. ▶ VAS 9

4) 回逆湯 45일 복용 후 재진

- ① 피부 소견: 귀 주변과 목, 膝窩部의 濕疹 증상 완화됨. 肘窩部의 紅斑, 丘疹, 소양증 남아있으나 전보다 감소함. ▶ SCORAD Index 18.1
- ② 389조 진단 소견: 눈의 피로와 올렁거림 증상 아직 있으나 전보다는 덜함. ▶ VAS 8
- ③ 긴장 시 열 오르는 것은 거의 없어짐.

5) 回逆湯 복용 75일 후 재진

- ① 피부 소견: 肘窩部에만 紅斑, 丘疹, 乾燥症, 搔痒症 남아있으나 전보다 부위 감소함. ▶ SCORAD Index

13.9

- ② 389조 진단 소견: 눈의 피로와 올렁거림은 노트북 오래 봤을 때 발생하고 전보다 컴퓨터 보는 시간 길어졌음에도 다시 심해지지 않음. 간헐적인 胸部의 답답함이 전보다 감소했으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 ▶ VAS 6

6) 回逆湯 복용 90일 후 재진

- ① 피부 소견: 肘窩部의 紅斑, 丘疹, 搔痒症 감소함. 거의 굵지 않음. ▶ SCORAD Index 8.4
- ② 389조 진단 소견: 눈의 피로와 올렁거림은 노트북 오래 봤을 때 발생함. 간헐적인 胸部의 답답함이 전보다 감소했으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 ▶ VAS 5

12. 치료 경과 요약 연대표

위와 같이 초진 이후 90일 동안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回逆湯을 90일 동안 복용하면서 SCORAD index가 44.6점에서 8.4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傷寒論』 389조 진단에 활용된 ‘霍亂’, ‘既吐且利’, ‘下利清穀’의 상태는 VAS 10점에서 5점으로 개선되었다. 환자의 頭面部, 肘膝關節의 피부 소견도 지속적으로 호전되었다(Fig.1). CARE guideline에 따라 환자의 치료적 중재, 연대표, 순응도, 의사와 환자의 경과에 대한 평가, 부작용 여부 항목을 도식화하면 다음(Fig. 1)과 같다.

Table 2. Timeline analysis of the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First visit	After 15 days Medication	After 30 days Medication	After 45 days Medication	After 75 days Medication	After 90 days Medication
Therapeutic intervention	Hoeyeok-tan g	Hoeyeok-tan g	Hoeyeok-tan g	Hoeyeok-tan g	Hoeyeok-tan g	Hoeyeok-tan g
SCORAD index	44.6	31.8	26.7	18.1	13.9	8.4
VAS for eye fatigue and nausea	10	10	9	8	6	5
Patient adherence	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Outcome		Still have exudate, less itchy at night	Exudate decreased, less itchy than before	All skin symptoms relieved	Skin lesions decreased.	Itching relieved almost.
Patient perspec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Side effects		not confirmed	not confirmed	not confirmed	not confirmed	not confirmed

SCORAD Index, SCORing Atopic Dermatitis Index; VAS, visual analogue scale.

13. 『傷寒論』 조문과 증례 경과의 고문자학적 분석

① 厥陰病 霍亂, 既吐且利

본 증례의 환자는 발병 전에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複視가 발생한 병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눈의 피로감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울렁거림, 구역감을 종종 느끼는 상태였다. ‘霍亂’이 후대에는 ‘吐瀉를 일으키는 병’을 의미하게 되었으나, 고문자학적으로 ‘霍’은 ‘새(隹)가 빗속(雨)을 날다’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Fig. 2A)이며²³⁾, ‘亂’은 ‘어지럽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환자의 경우, 눈이 피로한 안과적 상황이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어,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울렁거림과 구역감을 종종 느끼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부염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內寒, 外熱

‘內’는 ‘집(宀)으로 들어가는(入)’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다(Fig. 2B)²⁴⁾. 본 증례의 환자는 임상적으로 집 밖

이나 실외로 나가지 않고, 지나치게 집안이나 실내에서 지내면서, 전보다 추위를 타는 모습(寒)이 악화 요소로 작용하였다.

‘外’는 고문자학적으로는 ‘저녁(夕)에 점을 치는(卜)’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Fig. 2C)이며, 고대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침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점을 쳤기 때문에,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된다²⁵⁾. 즉, ‘外’는 저녁에 점을 칠 정도로 ‘과도한 걱정이나 염려’를 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후대에 ‘겉’, 또는 ‘밖’을 의미하게 되었다. 본 증례 환자는 피부에 열감이 느껴진 다거나, 발열 증상 이후에는 피부염이 심해진다는 특징으로도 후대에 형성된 ‘外’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리는 환자가 복시 등 안과적 증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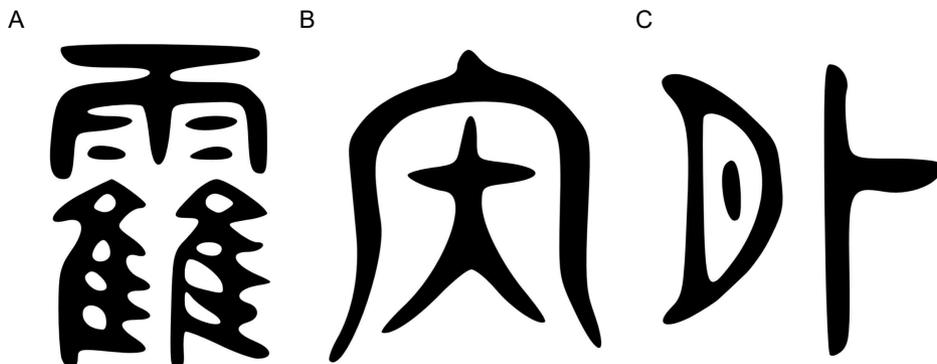


Fig. 2. Liushutong characters and unique number from CHINESE ETYMOLOGY 字源 (A) ‘霍’, L27428 (B) ‘內’, L21836 (C) ‘外’, L21083.

IV. 고찰

아토피피부염은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걸쳐 다양한 연령층에 나타나며 심한 癢感이 특징인 慢性 再發性 濕疹이다²⁶⁾. 병변에 滲出液, 鱗屑, 丘疹 등이 관찰되며 만성으로 갈수록 재 증상이 반복되며 苔癬化 되는 경향이 있다²⁷⁾.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증상 치료로 국소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면역 조절제 등이 활용된다²⁸⁾. 아토피피부염의 특성상 증상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며 재발하므로 스테로이드제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搔痒症으로

인한 2차적 감염 위험 또한 높다³⁾.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한의학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風熱, 濕熱, 血虛 風燥, 血熱, 濕熱溫燥 등이 원인⁵⁾이 되어 발생하는 피부 증상으로 규정하고 祛風, 清熱, 利濕, 益氣, 滋陰養血 등의 치법⁶⁾을 활용하였다. 한편 최근 『傷寒論』 연구에서는 提綱과 條文의 내용을 저작 시기의 고문자학적 고찰을 통해 해석하여 증상을 규정하고, 그것이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¹⁾. 피부질환에 대해서 『傷寒論』 처방이 활용된 다양한 연구들¹⁰⁻¹⁴⁾을 검토할 때, 향후 피부질환

에 대한 『傷寒論』 처방의 효용성은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분야인 것으로 사료된다.

回逆湯은 『傷寒論』 29條, 91條(이상 太陽病), 323條, 324條(이상 少陰病), 388條, 389條(이상 厥陰病 霍亂)에 기록되어 있다. 回逆湯은 少陰病 324條로 진단하여 전신 건선 증례¹⁹⁾와 아토피피부염 증례²⁰⁾가 보고되었으며, 厥陰病 霍亂 388條로 진단한 한포진 증례²⁹⁾가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少陰病 324조(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脉弦遲, 不可下也,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回逆湯.)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증례¹⁹⁾에서도 본 증례와 동일한 용량의 回逆湯을 87일간 처방하였으며,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변 부위에 있어서는 컨디션이 악화 되면서 얼굴, 턱, 목 부분이 심해지는 특징이 보고되었으며, 이것이 과도한 식사로 인한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과의 관련성이 있었다²⁰⁾는 점에서 본 증례와 동일하게 '吐'로 진단할 수 있었다.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아토피피부염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²⁸⁾된 바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附子の 경우, 고용량 사용 시 심장 독성이 우려되는 약재이나, 『한의방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傷寒論』 1兩을 3g 기준²²⁾으로 回逆湯을 처방하여 보고된 3개의 피부질환 증례 연구들^{19,20,29)}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적절한 용량의 사용, 그리고甘草와 乾薑 등 다른 약재와의 조합, 그리고 장시간 湯煎이라는 안전성 확보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사료되며, 『傷寒論』에 제시된 한약 제형의 방제학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본 증례 연구에서는 厥陰病 霍亂 389條로 진단한 아토피피부염 환자 1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 환자의 수가 부족하며, 앞으로 의학적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증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문자학적 해석은 여전히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傷寒論』 연구에서의 객관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따라 厥陰病

霍亂 389번 條文으로 진단하고 回逆湯으로 치료한 아토피피부염 증례를 통해 厥陰病 霍亂 389번 條文의 임상적 의미와 활용에 대해 고찰했다.

1. 본 연구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90일간 回逆湯 복용하여 SCORAD Index 44.6점에서 8.4점으로 감소했고, 눈의 피로감과 울렁거림은 VAS 10점에서 5점으로 변화하였다.
2. 본 연구는 『傷寒論』 厥陰病 霍亂 389번 條文의 글자를 어원학적으로 해석하고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응용한 증례로 回逆湯 복용에 따른 호진 경과를 고려할 때 389번 條文의 임상적 의미 및 활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eferences

1. Noh HM, Park SG, Kweon SH, Jo EH, Park MC. Case Report of the Patient with the Atopic Dermatitis, Psoriasis Treated with Mahaenggamseog-tang.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18; 32(1):80-7.
2. Kim JW, Lee GH. Atopic dermatitis basic and practice. 1st ed. Seoul:Koonja. 2017:13,53,55,261,292, 379,261,266-8.
3. Min DL, Park EJ, Kang KH. Review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n External Application Treatment for Atopic Dermatitis in the Korean Literature. *J Pediatr Korean Med.* 2013;27(1):36-49.
4. Jang HS. Diagnosis and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002;23(7):831-40.
5. Hur IH, Hong SM, Um YS, Byun HS, Sim SY, Kim KJ. A Case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External therap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6;19(3):201-8.
6. Noh HM, Park SG, Heo ES, Jo EH, Park MC. The study about the comparison of Korean-Western Medicine on Atopic Dermatitis and Food Allerg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7;30(2):86-99.
7. Song JH, Kim JH, Choi JH, Jung MY, Park SY. 3 Cases of Systemic Atopic Dermatitis Patients Improved by Korean Medicine Hospitalization Care. *J*

-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1;34(1):66-88.
8. Han CY, Park JG, Kang DW, Park SY, Kim BH, Kim YB, Kim KS. Analysis of Case Studies of Treating Atopic Dermatitis- focusing on Korean Herbal Medicine Used in Cases -.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9;32(3):151-63.
 9. Jo SJ, Kim CY, Ha YR, Kwon K. Two Case Reports on Atopic Dermatitis with Rebound Phenomena after Steroid Interruptio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21;34(1):101-11.
 10. Jin HS, Yoon HJ, Ko WS. A case of Adult Whole-body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Traditional Korean Treatment - Focus on the effect of Oryeong-sa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9;32(4):167-75.
 11. Yun SM, Im EK.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Osuyu-tang(Wuzhuyu-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3;5(1):85-92.
 12. Ryu HC.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Gamchosasim-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4;6(1):71-8.
 13. Min JH, Jo SH.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5;7(1):75-85.
 14. Kim NG.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Kyejiinsam-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7;9(1):75-83.
 15. Hong JE, Park MC, Kang SJ, Yang GJ, Jo EH. New Interpretation on 'MyeonGu' of Baekho-tang Text of Shanghanlun through Case Reports.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20;34(1):45-52.
 16. Lee SI, Cho HR.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20:187,229.
 17. Choi YK, Kang MS. A case rspeport of ge-yan-jiu & herbal medicine complex treatment on jue zheng caused by wang yang. Korean j. orent.Int. med. 2007;28(1):187-92.
 18. Lee LC, Min JH. A case report of overactive bladder treated by gamchogungang-tang, hoiyeok-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J of KMediACS. 2013;5(1):45-52.
 19. Lee WJ, Lee SI. Case Report of Psoriasis Treated by Hoeyeok-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9;11(1):83-94.
 20. Doo IS, Lee SJ.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Hoiyeok-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9;11(1):73-82.
 21.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22. Lee SI. Review of the converted weights of Shanghanlun prescriptions in 『Herbal Formula Science in Korean Medicine』. Herbal Formula Science 2022;30(3):191~203. doi.org/10.14374/HFS.2022.30.3.191
 23. Chinese etymology. [retrieved 2023 April 11]. Available from : URL : <https://hanziyuan.net/#%E9%9C%8D>
 24. Ha YS. Etymology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Homilbooks. 2015:129.
 25. Naver Dictionary. [retrieved 2023 April 11]. Available from : URL : <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2cb854535fe749a2b423285de2a1b2fe>.
 26. Roh SS. Atlas of dermatology. 2nd ed. P&P. 2014 : 497-528.
 27. Atopic Dermatitis Korean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nce. 2015:26.
 28. Carlo C, Giovanni C, Franca MD, Paola Z, David JA. Arch Dis Child. 1998;78(3):230-4. doi:10.1136/adc.78.3.230
 29. Ha HY. A Case Report of Dyshidrotic Eczema treated by hoiyeok-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 of KMediACS. 2019;11(1):139-51.